

기도의 응답 즉 기회라는 문(門)과 책임분담의 길

작성일 : 2012년 4월 29일 철야기도 중

작성자 : 황인선 (서울 명동 행운스타 청년부)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며 좋아하는 생명을보며
함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기도의 응답은 기회
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후에 기도하며 받은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 말씀

기도의 응답은 기회다.

너희 인생들이 나에게 가지각색으로

자신의 상황과 앞날을 두고 기도할 때

나는 앞날의 모든 것을 살피고 또 살피

너희에게 응답하고 있노라.

지금 당장 손에 쥐어 주는 자도 있을 것이고,

시간을 들여 결정하여 행하여 주는 자도 있노라.

합당한 것을 구한다 하여도

눈에 보이게 행하지 아니함은

쉽게 얻은 것은 너희 인생들이

쉽게 잃어버림을 알기 때문이라.

너희 각자의 기도

나는 기회로 응답하고 있노라.

기회는 곧 너희가
할 수 있는 터전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어부 아버지가
자식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잡고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이치란다.

나 예수가 너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주면
너희는 지금 당장은 좋아서 덩석덩석 받겠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 예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노라.

각자의 수준과 바람대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노라.

그러니 기도하다 안 들어준다고
시험들 것 없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삶 가운데 기도를 이루어 내는 것.

이 2가지 모두 너희 인생들의 책임분담이라.

사랑아.

기도는 내게 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하고자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까지
마무리해야지.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에서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 있으니
함께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나는 기다리노라.

기도를 듣는 자가 누구냐.

나 예수이지 않느냐?

너희의 사랑이지 않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가슴 설레 하며 너희 앞에 있노라.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누어 줄까.

다 알면서도 너희의 입술로

듣고 싶은 나의 마음을 아느냐?

너희는 ‘전능자이니 다 아실 텐데

왜 또 말해야 하나?’ 고

투덜거리는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랴도

다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냐?

오늘 뭐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1분 1초도 알리고 싶지 않더냐?

나 예수는 너희를 사랑해서

그리고 기대하며 찾아가는데

그저 너희 할 말만 하고 ‘아멘’ 하면

나는 어찌하겠느냐.

사랑해야지.

깨달아야지.

사랑도 깨달음도 이미 말씀으로 주지 않았느냐.

나 예수의 입장은
마치 소경을 사랑하는 자와 같고
말 못하는 병어리를 사랑하는 자와 같구나.

선생도 그러하겠지.
너희의 편지를 보며
이렇게 애가 타지 않겠느냐.
언제쯤 커서 내 마음 알아줄까.
언제쯤 내 마음 보듬어 줄까.
나도 선생도 늘 사랑에 외롭다.
나도 선생도 늘 기도에 외롭다.
이거 해 달라고 말만, 기도만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내게 구하고 선생에게 구하여야지.
너희 각자의 기도에
나도 선생도 분명 응답하여도
당장 자기 손에 쥐어 주지 않으니
떼를 쓰고 서운해 하는구나.
책임분담을 하지 않는 자에게 줄 것이 없노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느냐.

내 사랑하는 자야.
기도는 첫째 나를 사랑하니 하는 대화여야 한다.
둘째 기도로 구할 것은 구하되 합당하게 구하여라.
셋째 주는 자의 마음에 맞춰 해야지.
주는 자 심정 상하게 하면 주고 싶겠느냐.

신도 인간의 마음과 같노라.
알아주고 헤아려 주고 먼저 배려해 주는 자가 좋다.
너희를 지극히 사랑해 그토록 축복해 주었거늘
기회를 주어도 모르고 지나가고 포기하고 마니
더 이상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기회를 주었으면 잡아라.
잡고 행하여 네 것으로 만들어라.
삶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을 보아라.
그들은 절대 자신의 때를 놓치지 않노라.
늘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기회를 꼭 잡고 놔 주지 않노라.
그만큼 나와 깨어 소통함ियो,
나에 대해 앎이라.

내 사랑하는 자야.
기도라는 험난한 길을
눈물과 심정으로 끝까지 가면
기회라는 문(門)이 나온다.
기회라는 문을 지나면
길이 수만 갈래가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인생의 책임분담으로 이루어지노라.
얼마큼 자신의 책임분담을 다하느냐에 따라
축복의 차원이 달라진다.
하늘 앞에 자신의 책임을 100% 다하는 자는
그만한 축복을 받을 것이요,
80% 행하는 자는 80% 축복을,

20% 행하는 자는 20%의 축복을,
행한 대로 자신의 책임을 다한 대로 받는 축복이라.
그러니 너희 인생들에게 내가 무슨 답을 줄 수 있겠느냐.
절반은 하늘의 책임이요 절반은 땅의 책임이니,
말 그대로 너희 하기 나름 아니겠느냐.
기도의 응답에 대해 깨달았느냐?

(네, 주님 합당하면 들어 주시지만 인생들의 책임이 뒤따라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땅의 책임이 중요하네요.)

너희는 육신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지 않느냐.
지구의 태 안에서는
육신 가진 자들이 주권 부리는 자라.
나 예수도 그저 약자일 뿐이지,
결국 행하는 것은 너희 인생들이요,
모든 결정을 내리는 주권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렇게 애가 타서
너희를 바라보지 않느냐.
사랑의 역사라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노라.
강제로 사랑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 기도할 때
먼저 기도의 길을 닦아 기도하여라.
말씀 기준하여 기도하는 자는 탄탄대로요,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기도하는 자는
천 길 낭떠러지 길.

선생을 위해 기도하는 자도
말씀 무기 가지고 가야지,
쉽게 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아니노라.
5분 10분 하다
금방 불이 꺼지는 자들은 명심하여라.
기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무기가 필요해.
목숨 걸고 막는 사탄들을 이길
마음의 무기가 필요하다.
말씀으로 휴거되고 말씀으로 천국 간다.
알지?
듣고 또 듣고 심정 달라고 기도하며 들어라.
기도의 길은 결코 쉽지 않노라.
말씀이다.
너희가 마지막으로 갖춰야 할 마음의 무기는
말씀, 시대 진리.
명심하여라.
알았지?
기도하여 더 깊게 나를 만나자.
사랑해.
시대 진리의 주인 주 예수.